

미국 하원의 통상정책 결정요인과 시사점

고희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구미·유라시아실
미주팀 전문연구원
hcko@kiep.go.kr

최호락 모나시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horag.choi@monash.edu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미국 연방선거관리위원회(Federal Election Commission)는 정치자금 후원금을 크게 이익단체의 분배조직인 정치활동위원회(PAC: Political Action Committee)의 기부금, 개인기부금과 정당기부금으로 나누어 분류됨.
 - 이러한 정치자금 후원금 중 가장 많은 금액은 개인기부금이며, 그 다음으로 정치활동위원회(PAC) 기부금임.
 - 이중 미국 이익단체의 정치자금 분배조직인 PAC의 수와 영향력이 증가함에 따라, PAC 정치자금의 주요 대상은 누구이고, 이러한 자금이 의원들의 통상정책 결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가 지속됨.
- 미국의회의 통상정책 결정에 대한 의원들의 투표행위에 관한 연구는 크게 해당 지역구의 정치 및 경제적인 여건이 고려됨.
 - 정치적 측면에서는 의원들의 소속 정당 또는 이데올로기, 이익단체에서 만든 각각의 정치활동위원회(PAC) 기부금이며, 경제적 측면에서는 해당 지역의 산업구조나 실업률, 인구구조 등이 중요한 변수로 지적됨.
 - 이중 중요한 요인으로서는 이익단체로-노동 또는 기업 PAC의 기부금- 노동 PAC로부터 기부금을 많이 받는 의원은 자유무역에 반대하고, 기업 PAC로부터 기부금을 많이 받는 의원들은 찬성을 한다고 주장함.
- 그러나 대부분의 기존 연구들은 횡단면자료를 사용함으로써 이로 인한 내생성 문제를 극복하지 못한다는 한계점이 지적됨.
 - 특히 설명변수로 사용되는 노동 또는 기업 PAC 기부금의 내생성, 즉 PAC 기부금과 의원 개개인의 미 관찰 특성 간에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실질효과보다 과소 또는 과대 추정됨.
 - 이는 개별의원들의 관측 불가능한 이질성이 설명변수인 정치활동위원회 기부금과 종속변수에 둘 다 영향을 미침으로써 설명변수와 오차 항 사이에 상관관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발생함.
 -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기존 실증연구에서는 도구변수를 활용해 PAC 기부금의 내생성을 해결함.
 - 그러나 도구변수 모형을 사용한 추정방법도 의원 개개인의 미 관찰 이질성을 모두 통제할 수 없어, 근본적인 해결에 한계점이 있어 이러한 내생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확실한 대안은 패널자료를

이용한 분석모형을 활용함.

- 본 연구는 미국의 통상법안 결정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2000년 이후 의회를 통과한 11개 통상 법안 중 동일한 날짜에 의회를 통과한 4개 법안을 제외한 총 7개 법안을 패널자료로 구성함.
- 패널자료는 개별적 특이성을 통제할 수 있으며, 다중공선성 문제를 줄일 수 있는 등 다양한 장점이 존재함.

2. 조사 및 분석 결과

가. 미국의 통상정책 현황

- 미국은 캐나다와 체결한 미·캐나다 FTA를 필두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칠레, 싱가포르, 호주, 오만, 페루, 콜롬비아, 파나마, 한국 등 수많은 국가들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함.
- 이러한 대부분의 지역 및 양자간 FTA는 북미자유무역협정과 우리나라를 제외하고는 경제적 측면보다는 대부분 정치·외교적인 측면이 우선시됨.
- 미국이 체결한 통상이행법안에 대한 투표결과는 하원의원들의 투표는 공화당 소속의원은 찬성, 민주당 의원은 반대 의견을 표시하는 경향이 높음.
- 공화당 소속의원들의 경우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1993년 11월)에 대한 표결은 찬성 132표, 반대 43표로 찬성이 반대를 월등히 압도함.
- 미·칠레 FTA는 찬성 195표대 반대 27표, 미·싱가포르 FTA 찬성 197표대 반대 27표, 미·호주 FTA에서도 찬성 198표대 반대 24표 등 일관되게 압도적으로 찬성표가 우위를 점함.
-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미·오만 FTA의 경우 찬성 22표대 반대 176표로 반대표가 압도적으로 많았으나, 북미자유무역협정은 찬성 102표대 반대 156표, 미·칠레 FTA는 찬성 75표대 반대 128표, 미·싱가포르 FTA는 찬성 75표대 반대 127표, 미·호주 FTA는 찬성 116표대 반대 84표 등 상대국에 따라 적잖은 편차를 보임.

나. 미국의 통상정책 결정 메커니즘

- 미국의 통상정책은 크게 하원 세입위원회와 상원 재무위원회를 포함한 의회, 무역대표부(USTR), 국제무역위원회(USITC) 등을 포함한 행정부 등 같은 공식참여기관과 이익집단, 각종 민간협회나 소비자집단, 로비스트 및 연구기관 등 비공식적인 참여기관들에 의해 결정됨.

표 1. 하원의 FTA 이행법안 투표결과

의회회기	FTA 대상국	투표결과 (찬성-반대)	투표일	하원 다수당	행정부
108차 (2003~04)	칠레	찬성 270-반대 156	'03년 7월 24일	공화당	부시행정부 (공화당)
	싱가포르	찬성 272-반대 155	'03년 7월 24일		
	호주	찬성 314-반대 109	'04년 7월 14일		
	모로코	찬성 323-반대 99	'04년 7월 22일		
109차 (2005~06)	CAFTA-DR	찬성 217-반대 215	'05년 7월 28일	공화당	부시행정부 (공화당)
	바레인	찬성 327-반대 95	'05년 12월 7일		
	오만	찬성 221-반대 205	'06년 7월 20일		
110차 (2007~08)	페루	찬성 285-반대 132	'07년 11월 8일	민주당	오바마 행정부 (민주당)
112차 (2011~12)	콜롬비아	찬성 262-반대 167	'11년 10월 12일	공화당	
	파나마	찬성 300-반대 129			
	한국	찬성 278-반대 151			

자료: 미국 토마스 입법정보(<http://thomas.loc.gov/home/rollcallvotes.html>, 검색일: 2014. 9. 10).

- 이 중 의회와 행정부는 통상정책 결정과정의 직접적인 참여자이며, 민간부문은 간접적으로 결정과정에 관여하는 것이 특징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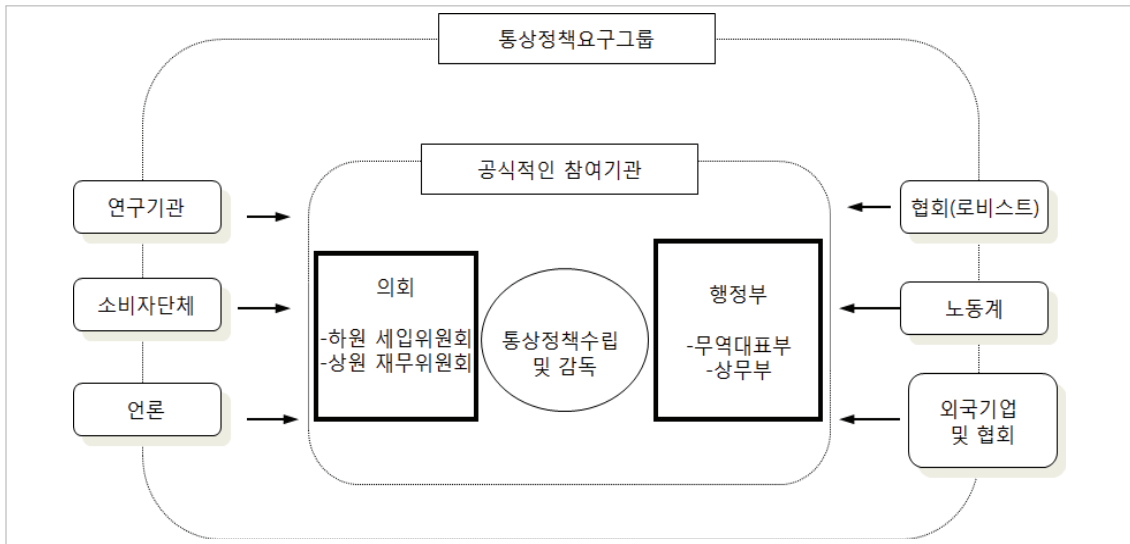
● 미국의회는 헌법 제1조 8항으로부터 통상정책에 대한 권한을 부여받고 있음.

- 동 조항에 따라 의회는 외국과의 무역을 규제하는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되어 있지만 의회가 직접 통상정책을 결정하고 무역협상에 나서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무역촉진권한(TPA) 등과 같은 권한 일부를 행정부에 위임하기도 함.
- 이러한 경우에도 통상 법안에 대한 최종승인 여부는 의회가 가지고 있어, 행정부의 통상협상 행위에 대한 견제와 감독을 강화하고 있으며, 특히 하원 세입위원회와 상원 재무위원회에서 통상업무를 관장함.

● 이 중 통상정책 결정과정에서 비공식참여기관인 민간부문의 대표적인 주체로는 각종 협회 및 로비스트, 연구기관, 언론 등이 존재함.

- 대표적인 주체는 업계로 각종 협회를 통해 정부가 공식적으로 운영하는 자문위원회에 참여하거나, 선거기간에는 기부금을 통한 선거자금을 지원함.
- 특히 로비스트들은 업계가 지원하는 풍부한 자금과 전 직장에서의 경험과 인맥을 동원하여 활동하며, 로비스트들은 공식적으로 통상입법과정에 간접적으로 참여하고 비공식적으로 의회 내 보좌관이나 의원, 행정부 관료들과 접촉하여 업계의 입장을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함.

그림 1. 미국의 통상정책 결정 당사자



자료: 저자 작성.

다. 미국의 통상정책 결정요인 분석

1) 모형

- 본 연구는 2000년 이후 미국 하원을 통과한 칠레, 싱가포르, 호주, 콜롬비아, 한국 등 11개 국가중 동일한 날짜에 의회를 통과한 4개 법안을 제외한 총 7개 FTA 이행법안을 기초로 패널자료를 구성함.
 - 정치·경제적인 측면을 세분화하여 기부금과 상임위원회, 인종적인 측면은 물론 경제적인 측면 중에서 차지하는 산업별 고용 및 실업률로 세분화한 후 분석함.
 - 아울러 소속정당별 계파, 예를 들면 공화당의 티파티, 공화당연구위원회(Republican Study Committee), 공화당주류파트너십(Republican Main Street Partnership)으로 나누고 민주당도 블루독, 의회진보모임(Progressive Caucus), 진보주의연대(New Democratic Coalition)로 분류함.
- 추정방법은 확률효과 모형을 고려한 패널 로짓(panel logit)과 하우스만-테일러 2단계 최소제곱법(Hausman-Taylor 2SLS)을 적용함.
 - 이는 개별의원의 수가 435명이나 시계열은 짧기 때문에 이러한 자료를 이용해 고정효과 모형을 이용해 추정하면, 추정개별더미가 너무 많아져서 추정치에 편의가 발생하므로 확률효과를 우선시함.
 - 그러나 확률효과 모형도 PAC의 기부금과 같은 설명변수와 의원 개개인의 미 관찰 특성 간에 상관관계가 없다고 가정한 모형이므로 근본적으로 내생성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점이 존재함.

- 따라서 시간불변 변수를 포함하면서도 내생성을 가지는 모형을 추정하기 위해 확률효과 모형에 도구변수를 이용한 모형인 하우스만-테일러 2단계 최소제곱법을 이용함.

2) 의원들의 통상법안 투표행위에 미치는 실증분석 결과

가) PAC 기부금

- 기부금액을 기존 연구와 동일한 방법인 노동 또는 기업 PAC의 기부금액을 설명변수로 한 결과, 기존 연구와 어느 정도 동일한 결과가 도출됨.
 - 즉 하원 의원들은 노동 PAC로부터 기부금액이 많을수록 FTA 법안에 반대하고, 기업 PAC 기부금액이 많을수록 FTA 법안에 찬성하는 확률이 높음.
 - 그러나 기업 PAC를 산업별로 세분화하면, 패널 로짓 모형에서는 기업 PAC에서 통신, 국방, 금융과 교통에서 PAC에서 받는 기부금액이 많으면 통상 법안에 찬성하는 확률이 높지만, 나머지 다른 산업 분야에서는 계수값이 유의미한 값이 도출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됨.
- 분위별 분석을 실시한 결과, 기부금 액수에 따라 분위별로 통상법안에 대한 태도가 조금씩 달라짐을 알 수 있음.
 - 기존 연구에서는 기업 PAC의 기부금액이 클수록 FTA 법안에 찬성을 하며, 노동 PAC의 기부금액이 많을수록 반대를 하는 것으로 제시됨.
 - 그러나 분위별로 나누면, 기업 PAC 받는 기부금이 최상위그룹이나 최하위 그룹에서만 계수값이 양(+)이고 유의한 값을 가짐.
 - 또한 노동 PAC로부터 받는 기부금에서도 각 분위별로 3분위와 4분위 계수값만이 음(-)이 되므로, 3분위와 4분위 그룹에서만 노동 PAC로부터 기부금을 많이 받을수록 통상법안에 반대하는 것으로 추정됨.
- 의원들 별로 전체기부금에서 차지하는 기업 또는 노동 PAC 기부금이 차지하는 비율로 방정식을 전환해 분석한 결과, 하우스만-테일러 2단계 최소제곱법의 추정방정식은 앞선 분석과 다소 차이가 있었음.
 - 즉 전체기부금에서 차지하는 노동 정치활동위원회는 제1분위(전체 기부금에서 차지하는 노동 PAC 기부금이 작은 그룹)를 제외한 다른 분위(2~4분위)의 계수값이 마이너스(-)이면서 유의하게 나타났음.
 - 또한 기업 정치활동위원회에서는 1~3분위의 경우 계수값이 플러스(+)로 나타났지만 4분위에서는 계수값이 음(-)으로 나타났음.

나) 소속정당 및 정치이데올로기

● PAC 기부금과 함께 의원들의 FTA 이행법안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소속정당과 소속정당 내에서의 정치이데올로기도 중요한 것으로 나타남.

- 전통적으로 노조를 지지 기반으로 하는 민주당은 최저임금 인상을 추진하고,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면 미국 근로자의 일자리를 해외로 유출시킨다고 주장하는 반면 보수층과 대기업을 지지기반으로 하는 공화당은 감세, 규제 완화 및 적극적인 자유무역을 지지함.
- 조세정책에 있어서 공화당은 소득세, 상속세 등의 한시적 감면을 시행한 데 이어 이를 영구화하려는 반면 민주당은 감세 영구화에 반대하고 고소득층에 대한 세제 혜택에 반대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그러나 이를 더욱 의원 그룹별로 세분해 보면, 민주당 소속의 블루독 구성원들은 다소 보수적인 성향을 가졌으며, 신민주당 연합은 무역촉진권한(TPA), 중국과의 항구적인 정상무역관계(PNTR: 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를 주장함.

● 소속정당 내 그룹들을 고려한 분석 결과, 민주당을 보면 통상법안에 전반적으로 반대하지만, 세부 그룹별로는 차이가 있으며, 공화당도 전체를 보면 통상에 찬성하지만 세부 그룹별로는 의견이 다른 그룹이 존재함.

- 공화당 주류파트너십과 공화당연구위원회는 통상법안에 찬성하는 반면 티파티는 반대하는 경향이 있음.

표 2. 소속정당 및 정치적 이데올로기

소속정당	주요계파	개요
공화당	주류파트너십	- 공화당 내에서 사려 깊은 리더십 향상을 위해 1993년부터 설립
	공화당연구위원회	- 보수 성향 - 세금감면, 규제철폐, 정부개입 최소화
	티파티	- 2008년 금융위기로 인해 부상 - 정부지출 감축, 정부채무 감소 및 세금인상 반대, 보호주의 무역성향
민주당	의회진보모임	- 진보성향 - 시니어 멤버로 구성(Senior Democrats) - 국가건강보험, 최저임금인상, 교육예산 증액
	신진보주의연대	- 온건성향 - 주니어 멤버(Junior Member)로 구성 - 자유무역, 정보통신(IT), 중산층보호
	블루 독	- 보수성향 - 균형재정, 건강보험개혁법에 부정적

자료: 공화당 주류파트너십(<http://www.republicanmainstreet.org/>, 검색일: 2014년 12월 8일); 공화당연구위원회(<http://rsc.woodall.house.gov/>, 검색일: 2014. 12. 8); 티파티(<http://www.teaparty.org/>, 검색일: 2014년 12월 8일); 의회진보모임(<http://cpc.grijalva.house.gov/>, 검색일: 2014. 12. 8), 신진보주의연대(<http://newdemocratcoalition-kind.house.gov/>, 검색일: 2014년 12월 8일); 블루 독(<http://bluedog.schrader.house.gov/>, 검색일: 2014. 12. 8) 등을 토대로 저자 작성.

- 또한 민주당 의회진보모임과 블루 독은 통상법안에 반대하는 확률이 높은 반면 신진보주의연대는 찬성하는 경향이 높음.

다) 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별로 세입위원회에 소속된 하원의원들은 5% 수준에서 유의하여 FTA 법안에 대체로 긍정적인 성향이 있음.
 - 그러나 FTA 법안에 대해 반대할 것으로 여겨지는 교육·노동위원회(Education and the Workforce Committee)는 계수값은 음(-)이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예상과 달리 FTA 법안에 대해 큰 영향을 미치는 못하는 것으로 분석됨.
 - 이러한 원인으로는 교육·노동위원회에 소속된 의원들이 노동문제는 물론 교육에도 포괄적으로 전문성이 있는 의원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으로 추론됨.

3. 정책 제언

가. 미국 행정부와 의회의 통상협상에 대한 선제적 대응

- 2014년 11월 미국 중간선거 결과 공화당이 상원과 하원을 모두 장악하여 다수당의 지위를 차지하여 미국 행정부는 민주당이, 의회는 공화당이 장악한 이원체제임.
 - 따라서 전반적으로 친자유무역 성향인 공화당에 의해 TPP나 TTIP와 같은 자유무역협정 비준에 필요한 무역촉진권한(TPA: Trade Promotion Authority)의 부활 가능성이 높아짐.
 - 우리나라의 TPP 참여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거대시장 확보는 물론 기업들의 FTA 활용도 제고를 위해 필수적임.
 - 따라서 미국 행정부와 의회 간의 통상 협상을 면밀히 주시하는 한편 향후 TPP 참여 시 이익 극대화는 물론 피해가 예상되는 산업에 대한 대책도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임.

나. 통상정책 수립과 추진의 제도화

- 미국 하원 의원들의 통상정책 결정요인에서 중요한 고려사항은 각각의 이익단체들의 기부금과 정치 이데올로기임.
 - 따라서 미국 통상정책 결정과정은 의회는 물론 각각의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이 잘 반영되어 있는 것이 특징임.

- 물론 우리나라도 정부 차원에서 통상정책 수립단계에서부터 해당 협회 및 기업들의 의견을 반영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음.
- 그러나 우리나라의 통상정책 수립과 결정에 있어서 아직까지 의회의 역할은 상대적으로 미비한 상황이므로 통상정책에 있어서 의회는 물론 업계, 소비자 및 언론 등의 의견이 더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화할 필요성이 제기됨.

다. 지한파 의원과의 긴밀한 유대관계지속

- 통상정책에서 미국 의원들의 정치 이데올로기가 중요한 것으로 제시됨으로 이들에게 우리나라가 정치적으로 동맹이자 우방임을 지속적으로 인식시키는 것이 중요함.
 - 이러한 방안중의 하나가 코리아 코커스(Korea Caucus)를 활용하는 하는 것인바, 코리아 코커스는 2003년에 한·미동맹 증진 및 미국 의회에서 우리나라의 정보공유를 위해 설립된 모임임.
 - 실증분석 결과, 하원 의원들은 어떠한 정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이 투표의 중요한 결정요인 인바, 코리아 코커스에 소속된 의원들은 지한파 의원으로 이들과의 유대관계를 지속적으로 강화시키는 것이 우리나라와의 통상마찰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임.



[참고자료]

<국문자료>

- 김홍률. 2002. 『미국의 통상정책 결정메커니즘과 한국에의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채 욱 외. 2007. 『한·미 FTA 이후 한국의 대미통상정책 방향과 과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영문자료>

- Akhtar, I. S. and Vivian C. J. 2014. "Proposed Transatlantic Trade and Investment Partnership(T-TIP): In Brief."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 Baldwin Robert E and Christopher S. Magee. 2000a. "Congressional Trade Votes: from NAFTA approval to Fast-track Defeat."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Washington DC.
- Baldwin Robert E and Christopher S. Magee. 2000b. "Is Trade Policy for Sale? Congressional Voting on Recent Trade Bills." Public Choice105.1-2, pp. 79-101.
- Beaulieu, Eugene. 2002. "The Stolper-Samuelson Theorem Faces Congress". Review of International Economics, Vol. 10, Issue 2, pp. 343-360.
- Beaulieu, Eugene and Christopher Magee. 2004. "Four Simple Tests of Campaign Contributions and Trade Policy Preferences". Economics&Politics. Volume 16, Issue2,pp.163-187.
- Christopher S. Magee. 2010. "Would NAFTA have been Approved by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Under President Bush? Presidents, Parties, and Trade Policy". Review of International Economics, Vol. 18, No. 2, pp. 382-395, May 2010.
- Fergusson, I.F., Mark McMinimy and Brock Williams. 2014. " The Trans-Pacific Partnership(TPP) Negotiations and Issues for Congress".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 Hornbech, J. F and W. H. Cooper. 2010. "Trade Promotion Authority(TPA) and the Role of Congress in Trade Policy"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 Im, Hyejoon and Hankyoung Sung. 2011. "Empirical Analyses of U.S. Congressional Voting on Recent FTA. The B. E. Journal of Economic Analysis & Policy. Volume11, Issue1.
- Kahane, L., 1996. "Congressional Voting Patterns on NAFTA; an empirical analysis". American Journal of Economics and Socology 55, pp.3 95-409.
- Hausman, J.A. and W.E. Taylor. 1981. "Panel Data and Unobservable Individual Effects." Econometrica, 49, pp.1377-1398.



- Kang, In-Bong and Kenneth Greene. 1999. "A Political economic analysis of Congressional voting patterns on NAFTA." *Public Choice*, 98, pp. 385-397.
- Romer, T. and I.M. Snyder. 1994. "An empirical investigation of dynamics of PAC contributions." *Empirical Investigation of the Dynamics of PAC Contributions.*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Vol. 38, No. 3, pp. 745-769.
- Saltzman M. G. 1987. "Congressional Voting on Labor Issues: The Role of PACs." *Industrial and Labor Relations Review*, Vol. 40, No. 2 (Jan., 1987), pp. 163-179.
- USITC. 2003a. "U.S.-Chile Free Trade Agreement: Potential Economy wide and selected Selected Sectoral Effects." USITC Publication 3605.
- _____. 2003b. "U.S.-Singapore Free Trade Agreement: Potential Economy wide and selected Selected Sectoral Effects." USITC Publication 3603.
- _____. 2004a. "U.S.-Australia Free Trade Agreement: Potential Economy wide and selected Selected Sectoral Effects." USITC Publication 3697.
- _____. 2004b. "U.S.-Morocco Free Trade Agreement: Potential Economy wide and selected Selected Sectoral Effects." USITC Publication 3704.
- _____. 2004c. "U.S.-Central America-Dominican Republic Free Trade Agreement: Potential Economy wide and selected Selected Sectoral Effects." USITC Publication 3717.
- _____. 2004d. "U.S.-Bahrain Free Trade Agreement: Potential Economy wide and selected Selected Sectoral Effects." USITC Publication 3726.
- _____. 2006a. "U.S.-Oman Free Trade Agreement: Potential Economy wide and selected Selected Sectoral Effects." USITC Publication 3837.
- _____. 2006b. "U.S.-Peru Free Trade Agreement: Potential Economy wide and selected Selected Sectoral Effects." USITC Publication 3855.
- _____. 2006c. "U.S.-Colombia Free Trade Agreement: Potential Economy wide and selected Selected Sectoral Effects." USITC Publication 3896.
- _____. 2007a. "U.S.-Korea Free Trade Agreement: Potential Economy wide and selected Selected Sectoral Effects." USITC Publication 3849.
- _____. 2007b. "U.S.-Panama Free Trade Agreement: Potential Economy wide and selected Selected Sectoral Effects." USITC Publication 3948.
- Villarreal A. M. 2014. "NAFTA at 20: Overview and Trade Effects."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웹사이트>

공화당 주류파트너십. <http://www.republicanmainstreet.org/>. (검색일: 2014년 12월 8일)

공화당연구위원회. <http://rsc.woodall.house.gov/>. (검색일: 2014년 12월 8일)

미국 노동부. <http://www.bls.gov/>. (검색일: 2014년 9월 10일)

미국 상무부 경제분석국. <http://www.bea.gov/international>. (검색일: 2014년 10월 15일)

미국 센서스국. <http://www.census.gov/2010census/>. (검색일: 2014년 9월 30일)

미국 센서스국(U.S. Census Bureau) County Business Patterns. <http://www.census.gov/econ/cbp/>.
(검색일: 2014년 9월 10일)

미국 토마스 입법정보. <http://thomas.loc.gov/home/rollcallvotes.html>. (검색일: 2014년 9월 10일)

미국 책임정치센터. <https://www.opensecrets.org/politicians/candlist.php?congrno=112>. (검색일: 2014년 10월 15일)

블루 독. <http://bluedog.schrader.house.gov/>. (검색일: 2014년 12월 8일)

신진보주의연대. <http://newdemocratcoalition-kind.house.gov/>. (검색일: 2014년 12월 8일)

위키피디아. <http://en.wikipedia.org>. (검색일: 2014년 10월 4일)

의회진보모임. <http://cpc.grijalva.house.gov/>. (검색일: 2014년 12월 8일)

티파티. <http://www.teaparty.org/>. (검색일: 2014년 12월 8일)

<http://voteview.com/DWNOMIN.HTM> (검색일: 2014년 11월 10일)